



# 일상의 사물 산수·꽃다발에 빛대 예술적으로 풀어내

전정연 작가

집안의 모든 사물을 산수와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됐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존재 가치를 되돌아보며, 이를 창작의 밑거름으로 삼아 생활 속 사물들과 산수를 결합하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 고뇌와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반영하며,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내 내면세계를 표현했다.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청록산수를 일상적인 사물에 결합하는 시도를 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산수 다

발' 시리즈는 꽃다발과 산수화를 결합한 작업으로, 기념일이나 축하 자리에서 받는 꽃다발의 행복한 순간을 작품에 담았다. 또한, 금전수와 같은 화분에서 영감을 받아 일상적 사물에 담긴 의미를 작품에 반영했다. 나의 작품은 산수와 꽃다발, 화분의 이미지를 결합해 관람객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개인전: 4회
- ◆단체전: 38회
- ◆레지던시프로그램: 2024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청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 ◆작품소장: 광주시 북구청



#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이들 감정 보듬어줘

이철규 작가

속도감 있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심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관계 맺음을 통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세상의 관계 맺음이란 서로의 노력 없이 지속하기 힘들고 한쪽의 편안함은 다른 이의 불편함의 대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평행선을 그리며 나아가기도 하고 상반된 시선으로 분석하며 서로 대립하고 각을 세우며 서로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한다. 이러한 감정들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다양하게 색감을 얹혀 치열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늑하고 재미난 형상으로 보여줌으로 그들의 다진 감정을 잠시나마 보듬어주고자 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녹여내 보려 했다.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진솔한 흔적을 되뇌어, 많은 기억을 상기해보며 또 다른 희망을 품어갈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 ◆개인전: 6회(서울, 광주, 곡성)
- ◆단체전: 다수(스페인, 싱가포르, 서울, 담양, 제주, 구미, 대전, 도쿄, 파주)
- ◆아트페어: 4회(싱가포르, 서울, 인천)



# 행복한 추억인 바나나를 삶의 희망으로 표현

박희정 작가

나에게 예술이 뭐냐고 물었다. "예술은 하는 사람이든 감상하는 사람이든 재미있거나 공감하거나 즐겨야 하는 것"이라는 철학도 없는 답을 했다. 그림이든 조각이든 재미있게 풀어서 작품을 선보이고 싶었지만 삶은 한 주, 한 달, 내 감정을 배제하고는 풀이할 수 없었다. 결국, 나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감정일기가 돼버렸다. 요리를 시작하고 끝내듯 감정 일기에 좋아하는 키워드를 넣고 바나나라는 달달한 과일을 넣어서 완성했다. 작가로서 첫걸음에 왜 바나나가 주제가 되었냐는 질문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다. 나는 숨은 그림찾기, 등고선, 바

나, 희망, 행복, 사랑 이런 키워드를 좋아한다. 사람, 동물,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행복감, 상실감, 실망감, 기다림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들을 작품으로 풀어가고 있다. 나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바나나를 좋아하는 나를 보면서 웃는 친구들은 왜 웃는지 나는 알 듯하다. 생각은 자유이다. 어렸을 때 바나나는 비싸고, 먹고 싶은 과일이었고, 먹으면서 행복했다. 지금은 흔한 과일이지만 그때는 그랬다. 바나나의 달달한 행복감이 필요했고, 노란색의 희망, 따뜻함이 필요했다. 물론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조형적으로도 훌륭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나는 바나나를 희망이라 부른다. 작고 큰 희망 아래 나만의 일기를 풀어가고 있다.



- ◆개인전: 8회(서울, 광주 등) ◆단체전: 다수(뉴저지, 광주, 서울 등)
- ◆아트페어: 10회(부산,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등)
-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 광산구청
- ◆최근 조형물제작
- \*2024 빛고을건강타운 조형물 제작 설치
- \*2023 순천 김계선 선생 동상 제작
- \*순천 연향 주공 아파트 미술장식품 당선 제작
- \*'NH공사 인양지구 아파트 조형물 공모 당선 제작
- \*'광양 섬진마을 경관 개선 사업 조형물의 다수 제작
- \*'거금도 생태공원 조형물 제작 설치
- \*'보문학숙 재단법인 보문 복지재단 설립자 정형래 초상조각 제작
- \*'광주교육대학교 서호 이명룡 초상조각 제작
- \*'군산 간호대학 설립자 이영춘 동상 제작

# 꽃같은 내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나이테로 담아내



진희정 작가

어느 마을이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며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당산나무가 있다. 한자리에서 온갖 풍파를 겪고 웅장하게 키워오며 뿌리를 내려가는 나무. 그 나무는 내게 마치 여성이 결혼한 집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월을 견디며 한 가정을 바로 세우고 행복한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한

국 여성들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당산나무에서 동질감을 느껴왔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테가 웅장해지며 그 마을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의 주름이 늘어날수록 삶에 대한 이야기거리는 다양해질 것이니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결혼이라는 제도하에 과거나 현재나 많은 여성이 풀리지 않는 묵은 숙제를 하고 있으니 자칫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울고 웃는 이야기거리를 진지하게 심각하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공감을 형성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그림으로 위로가 되고 싶다.

- ◆개인전: 13회(광주, 서울, 대전, 화순, 곡성, 순천, 순창, 구례, 담양)
- ◆아트페어: 6회(대구, 서울, 광주)
- ◆단체전: 45회(광주, 서울, 장성, 담양, 대구, 전주, 익산, 베를린)
- ◆수상: 광주예술총신인 예술상 수상
- ◆작품소장: 광주시 북구청, 순천시 도서관

